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90年을 향한 目標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敎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THE GOSPEL NEWS

5月15日(日) <1994年> 第515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3202)5398番
発行人 金君植・編集人 姜栄一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50円
昭和38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Tel.0474-24-7461 Fax.0474-24-7469

第4回 祖国의 平和統一과 宣敎에 関한

基督者東京會議開催

東京會議는 和解의 잔치

平和統一事業은 27年前부터 宣敎의 課題로

祖国이 分斷된지 半世紀가 흐르고 있다. 在日大韓基督教会가 同民族이면서 異民族처럼 在日韓國・朝鮮人이 居住하고 있는 日本땅에서 宣敎使를 命을 다하고 있다는 信仰의 告白을 前提로 할 때 적어도 一九六七年年 때는 半쪽만을 위한 宣敎活動이었다. 그러나 本敎團은 一九六八年 宣敎60周年을 맞이하여 宣敎의 基本政策을 發表하면서 祖国의 南北統一과 和解를 가져오기 위해 信仰의 決斷을 한바 있다. 그 具體的 活動이「祖国의 平和統一と宣敎に關する基督者東京會議」이다.

福音新聞은 五月의 東京會議을 앞두고 特集으로 讀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編集人)

一、一九九〇年七月—平和統一과 宣敎에 関한基督者東京會議

一九九〇年七月에 모인 이東京會議는 北의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朝鮮基督敎徒連盟과 南의韓國諸敎團・韓國NCC・그리고 本敎團을 포함한 海外同胞敎會가 祖国의 分斷의 아픔을 共同으로 告白하고 祖国의 平和統一을 위해 마음을 다해 祈禱하면서 南北이 和解할 수 있도록 하나같이懇切히 懇求하였다. 韓民族은 痛々로 民族의 罪를 悔改하면서 基督者의 힘으로 平和統一을 할 수 있도록 다짐도 하였다.

이會議에서의 合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民族間의 自主的 和解와 統一의 努力을 祖国의 平和統一을 念願하면서 우리와 信仰連帶를 다지는 海外兄弟 姊妹敎會들과의 繼續的인 積極協力을 다지면서 履行할 것이다. 그것은 韓半島의 平和統一이 世界平和의 具體的인 實証이고 世界平和에 貢獻하는 現實的인 功을 確信하기 때문이다.

第一回의 東京會議를 통한 만남은 하나같이 聖靈의 役事에의 해 이루어진 會議였다. 그 래서 우리는 서로 信仰 안에서 信賴하고 感謝와 讚揚을 드렸으며 주님이주시는 기쁨을 體驗하였다.

二、一九九一年七月—祖国의 平和統一과 宣敎에 関한基督者東京會議

第二回 東京會議는 聖靈의 平和統一을 위한 熱情으로 모인 것이고 하나님에 公布한 聖經의 禧年이 祖国의 平和統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確信하는 會議였다.

또한 모든 會議內容이 韓民族의 同質性을 再確認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會議에서 이제까지 展開해온 祖国敎會의 平和統一 運動精神을 繼承하면서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決斷을 다짐과같이 明한바 있다. 그 內容은 第一回의 東京會議의 合議에 따라 具體化되어야 할 必要性을 共同으로 認識하였기 때문이다.

(1) 韓國基督敎敎會協會(NCC) 및 朝鮮基督敎徒連盟과의 協力 및 共同連帶를 爲하여「平和統一 海外同胞敎會協議會」가 結成되도록 萬般의 準備과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組織도록 努力한다.

(2) 南北韓敎會 代表들이 3次 淸里峯協議會에서 合議한 韓半島의 平和統一의 禧年을 준비하기 爲한 五個年 共同事業이 定해진 期間內에 實現될 수 있도록 全力的으로 支援할 뿐만 아니라 어느 狀況에서든 地域에서라도 肯定的으로 實踐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祖国의 同質性을 確認하고 強化시키는 民族大團結・祖国의 平和를 圖謀하기 爲하여 祖国・그리고 海外同胞 社會에서 活動하고 있는 모든 平和統一 運動 團體들을 尊重하고 協力하며 連帶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分明히 밝혀야 할 것은 祖国의 平和統一의 宣敎課題는 世界敎會協議會(ECC)와 韓國基督敎敎會協會(NCC)만의 것이 아니라 南北韓敎會를 포함하여 世界에 흩어져 있는 世界 韓民族의 共同連帶體內에서 告白되어져야만 한다. 在日韓國・朝鮮人은 日本과의 歷史를 無視할 수 없으며 祖国의 分斷 歷史와 關係를 갖고 있는 다른 어느 民族보다도 差別을 받으며 살고 있는 民族의 共同連帶體의 存在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一九六八年에 合議되었던 第二十四回 總會에서 平和統一에 대한 信仰을 告白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祈禱하면서 神學을 再定立하고 使命을 다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왜 우리 敎團이 무엇보다도 平和統一을 重要한 宣敎課題로 하여 지금까 지 忠實한 정지기로 役割을 다하기 위해 努力해 왔는가? 그것은 祖国의 分斷은 海外同胞 社會에 葛藤과 憎惡 分裂과 敵對關係를 가져왔으며 특히 在日韓國人과 朝鮮人의 關係는 反目과 對立이 있다. 그 現場이 日本이며 이 속에서 宣敎活動을 해야만 하는 在日大韓基督敎會이며 우리는 이 宣敎的 課題를 하나같이 주신 地上의 使命으로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三、一九九二年十月—祖国의 平和統一과 宣敎에 関한基督者東京會議

同 東京會議는 東山莊에서「民族大團結에 對한神學的 評價의 主題로 열렸다. 이 모임은 一九八四年 祖国의 統一을 世界敎會 次元에서 論議하기 爲한 場所以기로 하였다.

第三回 會議는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交流에 関한 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이 採択 發効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參加者들은 民族의 團結을 통한 統一의 宣敎的 課題임을 確認하고 南北과 그리고 海外의 그리스도인들은 一九九五年을 禧年의 해로 合意中의 하나는 和解와 一致를 위해 南北敎會가 交換訪問하여 國內에서 南北 및 海外基督敎人들이 함께 統一祈禱會를 갖도록 共同으로 努力한다」이었다.

第四回 東京會議는 一九九四年五月三十一일부터 在日韓國YMCA에서 열렸다. 本國五個敎團과 本敎團이 共同主催한다.

우리의 祖国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分斷되었을 때 하나님께 祈禱드렸듯이 그 祈禱가 우리의 祈禱가 되어야 한다.



第2回 東京會議 (在日本韓國YMCA)



第3回 東京會議 (箱根東山莊)

들과의 繼續的인 積極協力을 다지면서 履行할 것이다. 그것은 韓半島의 平和統一이 世界平和의 具體的인 實証이고 世界平和에 貢獻하는 現實的인 功을 確信하기 때문이다.

第一回의 東京會議를 통한 만남은 하나같이 聖靈의 役事에의 해 이루어진 會議였다. 그 래서 우리는 서로 信仰 안에서 信賴하고 感謝와 讚揚을 드렸으며 주님이주시는 기쁨을 體驗하였다.

二、一九九一年七月—祖国의 平和統一과 宣敎에 関한基督者東京會議

第二回 東京會議는 聖靈의 平和統一을 위한 熱情으로 모인 것이고 하나님에 公布한 聖經의 禧年이 祖国의 平和統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確信하는 會議였다.

또한 모든 會議內容이 韓民族의 同質性을 再確認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會議에서 이제까지 展開해온 祖国敎會의 平和統一 運動精神을 繼承하면서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決斷을 다짐과같이 明한바 있다. 그 內容은 第一回의 東京會議의 合議에 따라 具體化되어야 할 必要性을 共同으로 認識하였기 때문이다.

(1) 韓國基督敎敎會協會(NCC) 및 朝鮮基督敎徒連盟과의 協力 및 共同連帶를 爲하여「平和統一 海外同胞敎會協議會」가 結成되도록 萬般의 準備과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組織도록 努力한다.

(2) 南北韓敎會 代表들이 3次 淸里峯協議會에서 合議한 韓半島의 平和統一의 禧年을 준비하기 爲한 五個年 共同事業이 定해진 期間內에 實現될 수 있도록 全力的으로 支援할 뿐만 아니라 어느 狀況에서든 地域에서라도 肯定的으로 實踐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祖国의 同質性을 確認하고 強化시키는 民族大團結・祖国의 平和를 圖謀하기 爲하여 祖国・그리고 海外同胞 社會에서 活動하고 있는 모든 平和統一 運動 團體들을 尊重하고 協力하며 連帶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分明히 밝혀야 할 것은 祖国의 平和統一의 宣敎課題는 世界敎會協議會(ECC)와 韓國基督敎敎會協會(NCC)만의 것이 아니라 南北韓敎會를 포함하여 世界에 흩어져 있는 世界 韓民族의 共同連帶體內에서 告白되어져야만 한다. 在日韓國・朝鮮人은 日本과의 歷史를 無視할 수 없으며 祖国의 分斷 歷史와 關係를 갖고 있는 다른 어느 民族보다도 差別을 받으며 살고 있는 民族의 共同連帶體의 存在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一九六八年에 合議되었던 第二十四回 總會에서 平和統一에 대한 信仰을 告白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祈禱하면서 神學을 再定立하고 使命을 다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왜 우리 敎團이 무엇보다도 平和統一을 重要한 宣敎課題로 하여 지금까 지 忠實한 정지기로 役割을 다하기 위해 努力해 왔는가? 그것은 祖国의 分斷은 海外同胞 社會에 葛藤과 憎惡 分裂과 敵對關係를 가져왔으며 특히 在日韓國人과 朝鮮人의 關係는 反目과 對立이 있다. 그 現場이 日本이며 이 속에서 宣敎活動을 해야만 하는 在日大韓基督敎會이며 우리는 이 宣敎的 課題를 하나같이 주신 地上의 使命으로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三、一九九二年十月—祖国의 平和統一과 宣敎에 関한基督者東京會議

同 東京會議는 東山莊에서「民族大團結에 對한神學的 評價의 主題로 열렸다. 이 모임은 一九八四年 祖国의 統一을 世界敎會 次元에서 論議하기 爲한 場所以기로 하였다.

第三回 會議는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交流에 関한 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이 採択 發効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參加者들은 民族의 團結을 통한 統一의 宣敎的 課題임을 確認하고 南北과 그리고 海外의 그리스도인들은 一九九五年을 禧年의 해로 合意中의 하나는 和解와 一致를 위해 南北敎會가 交換訪問하여 國內에서 南北 및 海外基督敎人들이 함께 統一祈禱會를 갖도록 共同으로 努力한다」이었다.

第四回 東京會議는 一九九四年五月三十一일부터 在日韓國YMCA에서 열렸다. 本國五個敎團과 本敎團이 共同主催한다.

우리의 祖国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分斷되었을 때 하나님께 祈禱드렸듯이 그 祈禱가 우리의 祈禱가 되어야 한다.

医療 法人 キム医院

医学博士 金世榮
(大阪敎會 長老)

大阪市生野区中川3丁目5-2
(ジョイフルマンション1F)

☎ (06) 752-4567

《診療科目》

内科(循環器・呼吸器・消化器)
小兒科・麻酔科・理学診療科・放射線科

《診療時間》

AM 9:00~12:30, PM 5:30~8:00

休診(水・土曜日午後・日曜・祝日)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愛

取締役社長 張鐘善
(名古屋敎會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愛三産業株式会社

(株) 済州カントリークラブ

取締役会長 白昌鎬
(東京敎會 長老)

取締役社長 白一善
(東京敎會 執事)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 (03) 633-7477(代)

FAX (03) 631-7703

総務 3月

総務 姜 栄 一

- 3月16日 会計監査
20日 財政局会
21~22日 神学生研修会 18名이 参加,
24日 金泳三大統領 歡迎會에 金君植總會長
과 出席, 基督改革派 三沢教会堂 買入
契約, 金致淵牧師와 함께,
29日 住信銀行 担当者와 資金運用에 関해
議論,
30~31日 6教団 總務會議(東京會議),
4月3日 關東地方教会女性連合會 主催 復活節
合同音樂礼拝 於: 東京教会
4日 關東地方會任職員會에 出席,
10日 浦和教会에서 説教,
11日 總會任員會,
12日 試取, 宣教師 4名, 牧師 7名, 講道師
7名, 合計 18名, 밤 人事局會
13日 任職員會, 教役者退職金細則案等 決議,
13~15日 宣教師研修會,
17日 東京第一教会에서 説教,
18日 朝鮮基督教徒聯盟으로부터 東京會議
代表團의 名單이 伝達,
18~20日 東京會議 講師와 協議,
21日 RAIK理事会, 새 理事長에 尹宗銀
牧師 選出,
22日 前島宗甫前總幹事, 大津健一總幹事の
歡送會에 出席,
24日 카나다長老教会 로바트總會長 迎接,
29日 定期關東地方會에 出席,

■總務雜感■

3, 4月은 神學生研修會와 宣教師・牧師・講道
師 考試가 있는 달이다. 神學生研修會에는 모
두 18名이 参加하여 黃義生委員長이 感激하여
興奮할 정도였고 4名의 宣教師, 7名의 牧師,
7名의 講道師 考試者가 있어 試取委員들을 또
다시 感激케 하였다. 牧師, 講道師 考試에는
在日2世와 함께 日本에서 神學課程을 마친
자 그리고 日本国籍을 가진자와 3名이나 있
어 (그중 歸化者1名) 總會의 多樣性 있는 教
會形成의 한 모습을 엿보게 되었다.

總會의 課題는 多樣性을 認定하면서 한편 一
致를 追求하는 教會로 發展해 나아가야 할 것
이다.

아울러 2月号에서도 言及했지만 總會立神
學校의 必要性이다. 東京神學大學의 學長이었던
桑田先生은 教會와 神學校를 自動車의 두
바퀴라 비유했다. 한 바퀴로만은 똑바로 갈수 없
는것 같이 神學校가 없이 在日教會의 神學定立
은 不可能한 것이다. 全教會의 뜨겁고 뜨거운
간절한 祈禱를 바란다.

第3回 任職員會 開催

退職金支給細則 決議

本教団 第42回 總會第
3回 任職員會가 一九九
四年 四月十一日 午後二
時 大阪教会堂에서 모여
總會長 金君植牧師의
會로 開催되었다.
重要한 報告事項 決議
를 하였는데(次号에 掲載)
特別히 退職金支給細則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決
議하였다.

6ヶ月・12・5年
C教會・24年46才・70才
退職時謝禮額×8年×1・
15
退職時謝禮額×16年×
1・2 ※月コンマ・12年

在日大韓基督教會의 退職金
支給基準는 次의 通りとする.
(1) 退職金의 算定年月は、
本人가 赴任した日より退職
の月までとし、算定の基礎
は退職する本人の退職時謝
禮額とする。ただし、謝禮
額は、年間總謝禮額の十二
分の一とする。
謝禮額=年間總謝禮額×
12分の1
(2) 退職金支給率は
退職時謝禮額×勤務年月
×所定比率とし(月コンマ)
それぞれの勤務年月の所定
比率を乗ずる。
勤務3年未満 80%
3年以上10年未満 100%
10年以上20年未満 110%
20年以上30年未満 115%
30年以上 120%
例、A教會・12年24才・36
才・退職時謝禮額×3年×
0・8、退職時謝禮額×7年
×1・0、退職時謝禮額×2
年×1・1、B教會・10年36
才・退職時謝禮額×
8年×1・1・退職時謝禮
額×2年×1・15



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 訴訟判決報告集会

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が去
る3月29日、大阪地裁にて
理由として法務大臣が宣教
師としての在留期間の更新
と再入国を不許可処分とし
たことを不当とするマッキ
ントッシュ牧師の訴えが去
る3月29日、大阪地裁にて
「請求棄却」としてしりぞけ
られた。
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は
外登法に苦しみめられている

在日韓国・朝鮮人への宣教
を行う時、彼らと同じ立場
に立たなければ宣教は不可
能であるとして指紋拒否し
たのだから法務大臣の処分
は憲法で認められた「宣教
権」の侵害であると主張し
ましたが、その真意は訴え
は認められなかった。
以下はこの判決に対する
マッキントッシュ牧師支援
會を始めとする関西の外登
法と関わってきたキリスト
教組織による抗議声明であ
る。

なお、マッキントッシュ牧
師は去る4月5日、異例の
早さで法務大臣より、従来
の在留資格(宣教師3年)が
与えられ、安息年のため4
月7日、日本を離れた。
このことは裁判では日本と
いう国家のメンツを保ちな
がらも結局マッキントッシュ
牧師を処分することができ
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
多くの信徒の祈りと支援へ
の感謝とあわせて報告した
です。

去る三月二十九日、大阪
地方裁判所第七民事部(福
富昭裁判長)は、マッキ
ントッシュ宣教師の「在留期
間更新の不許可処分及び再
入国不許可処分」の取り消
しを求めた訴えに対して、
請求棄却の判決を下しまし
た。一九八七年六月十日の
第一回口頭弁論以来、六年
九カ月、二十九回に及ぶ弁
論にも拘わらず、今回の判
決は原告の訴えはもろも
ろ、証人の重大な証言やこ
の裁判に固有な争点にも、
なんら応えることなく、無
内容で型どおりの判決に終
わっています。私たちは、
仮に厳しい判断が下される
としても、歴史的意味を持
った誠実な判決内容を期待
してききました。にも拘わ
らず、此の度の判決がほとん
ど反論にも値しない既定の
法理論に終始していること
に、憤りとともに虚しさ
を覚えるを得ません。判決
の基調は以下のように要約
できます。すなわち、「外国

マッキントッシュ宣教師の在留権・宣教 権訴訟判決に対するわれわれの立場

告・マッキントッシュ宣教師
は、日本の歴史的責任を強
く求め、日本の責任によっ
て在日を余儀なくされた多
くの在日韓国・朝鮮人、中
国人の日本における法的処
遇の全面的改善への大きな
一歩として、外登法の抜
本改正を要求し、その闘い
が、日本に派遣された一人
の宣教師として避けがたい
課題であることを訴え、指
紋押捺を拒否したのでし
た。こうした問題提起は、
一九八〇年、韓宗碩氏の指
紋押捺拒否を出発として、
全国に在日する韓国・朝鮮
人、中国人、そして日本で
の宣教師の使命を担う宣教師
の押捺拒否運動へと広が
りました。日本のキリスト教
各派もまた、この外登法の
抜本改正を求めることが、
この歴史的社会的諸関係の
まっただ中における教会の
宣教師の課題であることを宣
言してこの運動に参加し、
また支援の輪を広げてきま
した。それはまた、世界の
そしてアジアのキリスト教
會にとっても強い関心と共
同の闘いの中にあるものと
言えます。私たちは日本の
戦争と侵略と植民地化の歴
史を批判しつつ、この世に
遣わされた教会の宣教師と
何かを模索する中から、外
登法の抜本改正を求めるこ
とは、まさに現代のキリス
ト教会の宣教師の課題であ
ることを内外に表明してきま
した。そして「信教の自由」
とは、こうした外登法をめ
ぐる教会及びキリスト者の
提起する出来事全体を、そ
の宗教の宣教師活動として保
障することではなければなら
ないと考えてきました。

二千年前、聖書の伝える
福音は、イエスのまわりで
起こった出来事、すなわち、
貧しい人々が福音に生かさ
れ、目の不自由な人、足の
不自由な人が解放されてい
る(ルカ7・21・23)、その
出来事そのものが福音であ
ると告げています。それは
当時の宗教によって枠づけ
された社会秩序への抗議で
した。不当に人々を困難な
ところに追い込むことで成
り立っている排外的秩序
は、問われざるを得ません。
しかし、その秩序に固執す
る当時の指導者たちは、こ
のイエスのまわりで起こっ
た出来事に瞶き、イエスを
敵視しました。その意味で、
マッキントッシュ宣教師の問
いかけも、依然として、こ
の日本では瞶きとしてしか
受けとめられませんでした。
一九九三年一月、日本は
永住資格を有する外国人に
対する指紋押捺制度を廃止
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い
え、いまだに外登法の抜
本改正にはいたっていません。
むしろこの「改正」が
マッキントッシュ宣教師をは
じめとする非永住外国人へ
の指紋制度を存続させるこ
とによって在日する外国人
の間に分断さへ持ち込んで
います。私たちの課題は、
さらに厳しい状況の中にあ
ります。

私たちは、この闘いを通
じて宣教師とは何かを考え、
人権への責任を自覚しまし
た。そして、さらに前進す
る意欲とそのための人のつ
ながりを得ました。私たち
は、これらのことを大切に
して、「人が人として生き、
生かされる」社会の実現に
向けて、希望を持って進む
ことをここに宣言し、声明
とします。

一九九四年四月十八日
●マッキントッシュ宣教師の
在留権訴訟を支援する会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関
西キリスト教代表者會議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関
西キリスト教連絡協議會
●在日本大韓基督教會関西
地方會社会部

第四回祖国の平和統一と宣教に関する 基督者東京會議 開催案内

○日時：1994年5月31日(火)~6月2日(木)

○場所：在日本韓国YMCA

(電話 03-3233-0611)

○主題：民族大團結 原則을 實現하기
위한 教會의 役割

主管：在日大韓基督教會 總會

金瓊燦元老牧師逝去

神戸教会堂에서 葬礼式



故 金瓊燦元老牧師

지난 四月十二日 午前六時十分、神戸教会 金瓊燦元老牧師が三木市自由ヶ丘病院에서 老患으로召天하였다(享年 七九才)。故人の葬礼式은 四月十三日 神戸教会堂에서 弔客 約二百名이 모인 中辛鐘國牧師의 司式에 의해 葬禮式으로 嚴肅히 挙行되었다。

葬禮式 進行은 一同이 黙禱、故人の 愛唱 讃頌 五三三章、二三三章을 讃頌한 後、西部地方會副會長 文泰善牧師가 祈禱했다。聖經 요한복음 21章 15-17節 奉誦、神戸教会 聖歌隊의 牧別頌後、**「主의 羊을 먹인者」**란 題目으로 西成教会 金元治 元老牧師가 感銘깊은 說教을 하였다。

이어서 一同이 五四一章을 讃頌、全奎長 按手執事의 故人の 略歴紹介、總會를 代表하여 金得三 洗禮를 받았다。

故 金瓊燦 元老牧師는 一九一五年 八月 三十日 咸鏡南道 咸興에서 出生、一九二四年에 渡日、一九三二年 四月에 高麗偉牧師로부터 學習、一九三二年十月에 同 牧師로부터 洗禮를 받았다。

金得三牧師가 西部地方牧師로

神戸教会서 就任式

지난 三月十三日(主)午 後五時부터 金得三牧師의 西部地方牧師 就任式이 神戸教会堂에서 西部地方會會長 金德化 牧師의 司會、祈禱 副會長 文泰善牧師、聖經 갈라디아서二章二十節과 베드로전서四章十節부터 十一節까지 奉誦한 後에 會長의 권면이 있었다。任職者와 任職員을 그리고 함께 參席하신 牧師人들 앞에서 誓約式을 하며、地方牧師로 就任하게 되었다。앞으로의 活動을 期待하며 뜨거운 祈禱와 支援을 바란다。

一九三九年 関西學院大學 文學部 英文學科 卒、一九四一年 廣島大學 文學部 心理學科卒、一九五三年 神戸改革派神學校 卒、一九六五年 카나다마길大學에서 神學博士學位를 取得했다。

一九四一年十月 文宋洙 牧師 主礼로 池蓮華氏와 結婚、解放後、京都韓國學院 校長、一九五三年以後 遺族으로는 부인 池蓮華氏、長女 金貞姬(婿李秀夫)、長男 金海龍、次男 金海益(子婦 金東淑)、内外 孫으로 六名이 있다。

러시아서 온 노래하는 天使들 信仰干証과 讚頌公演團 來訪

橫須賀・東京Y・静岡 各地에서 公演

一九九四年三月一九日부터 二十一日까지 모스크바 러시아宣敎會에서 任職牧師 金바울 牧師가 16名의 聖歌隊와 伴奏者 그리고 現役軍人 大領等 18名을 率하여 橫須賀市內 日本各教會와 鎌倉恩寵教會가 參席하여 橫須賀市勤勞福祉會館에서 十九日午後三時부터 五時까지 第一回 公演을 가졌고 二十日에는 東京韓國YMCA에서 關東地方會를 中心으로 午後六時부터 八時까지 第二回 公演을 가졌다。또한 21日에는 静岡에서 静岡伝道所(担任朴永昊牧師)를 中心으로 日本静岡梅屋町 크리스ト教會에서 午後七時부터 八時三〇分까지 第三回 公演을 가졌다。

新生 러시아社會의 基 督敎 宣敎報告와 함께 聖 歌隊들의 干証을 韓國語로 하였으며 韓國民謡와 러시아의 民謡를 통하여 큰 感銘을 받았다。

특히 金바울 牧師는 러시아의 軍宣敎를 強調하면서 韓國의 軍牧師制度를 러시아에도 導入시킬



러시아에서 온 노래하는 천사들 공연

計劃을 말하고 過渡期的인 지금이 가장 러시아의 宣敎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強調하였다。

러시아의 宣敎會는 一千여명이 모이나 經濟的인 어려움으로 一千名이

하는 獻金은 한主日 食 事의 半밖에 안된다고 한 다。四泊五日의 짧은 日程이었으나 뜻깊은 集會였다。(關東地方會 社會部長 鄭相熙)

朝鮮キリスト教徒連盟

高基俊牧師 召天



故 高基俊牧師

本總會と平和統一の宣敎課題を取り出し、宣敎のわざをはたしてきた、朝鮮キリスト教徒連盟の書記長で

あつた高基俊牧師が去る三月三十日、がんのため咸鏡北道の温泉地で召天された。享年 七十二才。

高牧師は本總會が平和統一を宣敎課題として打ち出した以後、一九八二年より本總會と共に「祖国の平和統一と宣敎に關する基督者東京會議」に力を入れてこられた牧師であつた。

關西教育部主催로 神學세미나 實施

開會式・入学式開催

關西地方會教育部主催로 지난 三月二十日(日)午後五時부터 二十一日(月)正 後五時부터 二日(月)正 後五時까지 京都教會堂에서 第 2回信徒神學세미나가 實施되었다。第1回세미나에서 終末論에 關하여 했 고、금번에는 異端宗敎에 대한對策이 主題가 되었다。

關西聖書神學院서 卒業式・入学式開催

2名이 卒業、새로 4名入學

第八回 卒業式이 지난 3月27日(日)午後三時부터 大阪北部教會堂에서 實施되었다。卒業生으로는 北部教會의 咸美羅氏 2名 이었다。金榮植牧師의 祈禱會로 李昌雨牧師의 祈禱와 要한복을 12장 20절 26절 聖書奉誦、**「한일 의 眞理」**라는 題目으로 韓國教會史의 人物에 나 타난 犧牲精神을 바탕으로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院長 羅曾男牧師의 說教가 있었다。그 리고 李炳球牧師의 勸勉、李大京牧師와 朴昌煥牧師의 祝辭、金得三牧師의 祝

教会・教会員の保険は★全てお任せ下さい

全国どこでもOK! 事故の時安心!

現代海上火災保險株式会社

住友海上火災保險株式会社

ALICO・JAPAN

日本生命保險相互会社 取扱

聖光保險事務所

代表 金 聖 次
(西成教会 長老)

〒596 岸和田市小松里町1-26

TEL 0724-43-1641

FAX 0724-43-7975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榮 吉
(福岡教会 長老)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 271-2126 番

FAX (092) 272-1855 番

韓国そうざい・食肉加工

食品輸出入・各製造販売

高山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元 洪 植
(福岡教会 長老)

本社 〒816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番26号

電話 (092) 461-0055(代)

自 宇 (092) 471-0258番

FAX (092) 461-0090番

※おいしい김치・고추장・떡국発送いたします。

下関市大学町 5 - 6 - 4
代表 (0832) 3 2 - 8 1 9 2
自宅 (0832) 5 5 - 0 1 4 2